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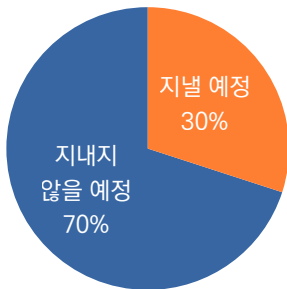


[2026 추석: 차례/제사 계획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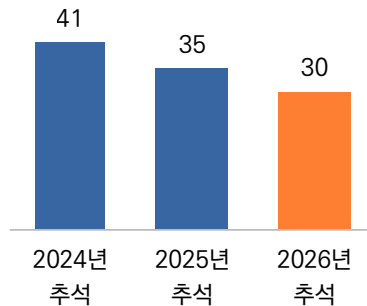
국민 30%, 올 추석에 ‘차례/제사 지낼 예정’!

-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. 올 추석에는 차례나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 최근 발표된 ‘2026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’(한국리서치)을 통해 살펴본다.
- 올해 추석에 차례나 제사를 ‘지낼 예정’이라는 응답은 30%로 나타났다. 2024년 추석 조사 당시 41%였던 차례·제사 계획 비율은 2025년 35%, 올해 30%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올해 추석 차례/제사 계획 여부
(2026, 일반국민, N=1,000)



[그림] 차례/제사 ‘지낼 예정’ 비율 추이
(일반국민, 추석 명절 기준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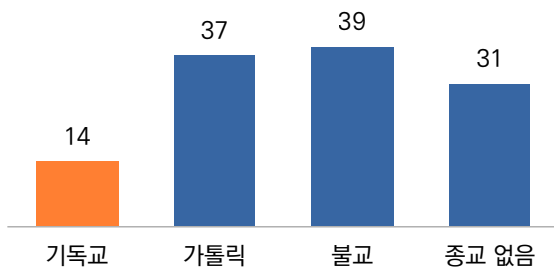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2026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, 2026.09.15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9.04.~09.07.)

기독교인 14%는 이번 추석 차례/제사 지낼 계획

- 종교인별 올 추석 차례/제사 계획을 살펴본 결과, ‘불교인’(39%)과 ‘천주교인’(37%)이 상대적으로 높았고, 기독교인은 14%로 조사됐다.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전 집단에서 ‘지내지 않을 예정’이 과반을 차지했다.

[그림] 종교인별 올해 추석 차례/제사 계획 (2026, 일반국민, N=1,000, ‘지낼 예정’ 비율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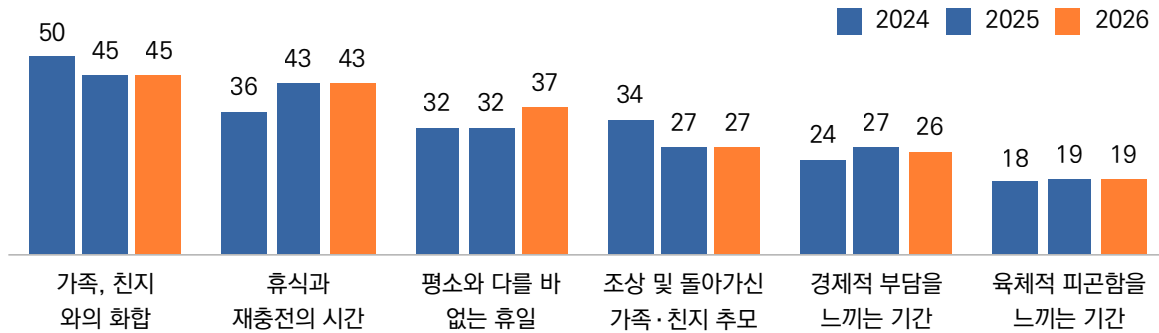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2026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, 2026.09.15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9.04.~09.07.)

추석의 의미, 공동체적 의미에서 개인적 의미로 변화

- 국민들이 생각하는 추석 명절의 의미는 '가족, 친지와의 화합'(45%)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.
- 그러나 2024년 이래 지난 3년의 추이를 보면 가족/친지와의 화합을 기대하는 공동체적 의미는 점점 약화되고, 휴식/평소 같은 휴일 등 개인적 의미로 축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.

[그림] 추석의 의미 (일반국민, N=1,000, 상위 6개, 중복응답, %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2026년 추석 명절 모임 및 일정 계획, 2026.09.15.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9.04.~09.07.)